

< 要 約 >

- (北韓 動向) 최근 상층 엘리트의 脫北 現狀 增加 등 북한 체제 내부에 정치·경제적으로 不安定 要因이 증대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안에 체제가 갑작스래 崩壞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對內 政策) 체제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黨과 軍을 중심으로 保守化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對外·對南 政策)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의 對美 關係 진전을 위해 有和的인 對美 접근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對南 비방 강화 등 對南 敵對 政策을 오히려 강화해 나가고 있음
- (北美 關係) 11월 大選을 앞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對北 접근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있으나, 美 大選과 연계되어 조만간 보다 가시적인 대북 관계 진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됨
 -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은 올해 北美 관계의 진전 여부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 문제의 타결 과정에서 「平和協定을 위한 暫定協定」 체결이나 대표부급의 상호 교환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北日 關係)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한 미묘한 韓日 關係를 고려하여, 對北 접근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北美 關係의 진전 정도에 따라 보다 독자적으로 對北 접근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도 있음
 - 韓日간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북한 카드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對北 政策) 현재와 같은 우리 정부의 對北 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볼 때 4월 이후에는 쌀 지원 재개 등 보다 有和的인 政策으로 轉換될 가능성이 있음
- (對北 食糧 支援)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對北 식량 지원을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점차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對北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南北 關係) 4월 이후에는 北美 관계의 일정한 진전과 연계되어, 남북한 양측의 상호 양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南北 對話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北美 關係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南北 關係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對應 方向)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체제의 정착률을 위해, 대화와 접촉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체제 변화 유도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됨

I. 最近北韓動向과 對內外政策

- (內部動向) 최근 북한 엘리트의 脫北 現狀 增加 등 체제 내부에 정치·경제적으로 不安定 要因이 증대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안에 체제가 갑작스레 崩壞될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對內政策) 체제 유지를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黨과 軍을 중심으로 保守化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對外·對南政策)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의 對美 關係 進전을 위해 宥和的인 對美 접근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對南 비방 강화 등 對南 적대 정책을 오히려 강화해 나가고 있음

1. 內部動向과 '96 政策方向

-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갑작스레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최근 북한 체제 내부에 정치·경제적으로 不安定 要因이 增大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체제가 崩壞될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이미 붕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구분	형 태	실현 가능성	비 고
시기	갑작스런 조기 붕괴	小	경제난과 엘리트의 탈북 현상 증가
	중장기에 걸친 점진적 붕괴	大	등 체제 내부에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음
방법	內部 爆發(implosion)	有	현재에는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됨
	對南 挑發(explosion)	有	

- 현재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回生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民心 離反 등 체제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의 脫北 現狀 增加 역시 김정일의 권위 실추 등 체제 동요와 정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줌
 - 김정일의 前妻 성혜림 일가 망명 사건, 잠비아 북한 외교관 夫婦 망명 사건, 평양에서 있는 북한 武裝 保安 要員의 러시아 무역대표부 난입 사건은 김정일의 체제 관리 능력에 異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곧 崩壞될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하겠음
 - 체제 유지의 根幹이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 黨 · 軍의 역할, 특히 김정일에 대한 軍의 충성심 등에 있어서는, 아직 별다른 異常 徵候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듯

○ 올해 북한에서는 黨과 軍을 중심으로 한 保守派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용주의적 개혁 · 개방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북한 체제는 체제 수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軍部 주도의 危機 管理 體制라 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체제 강화 등 보수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軍部の 영향력과 군사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경제 위기와 같은 總體的 難局 속에서도, 대내외 경제 정책 등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은 군사통치와 遺訓統治를 통해, 漸增하는 체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간(3~4년)은 그런대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對美·對南 政策의 基調

대남 적대 정책의
강화와 유화적
대미 접근의 가속화

- 올해 북한은 對美 關係 개선을 最優先의 외교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南北 關係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더욱 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체제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올해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의 일정한 對美 關係 진전을 위해, 유화적인 對美 接近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을 위해, 對南 비방 강화 등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고취해 나가고 있음
 - 對美 宥和·對南 敵對라는 非對稱的 政策의 並進 路線이라 하겠음
 -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금년 1월 1일에 발표된 북한의 「新年辭」(공동사설)은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통한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추진(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北美 關係 개선과 連繫시키고 있음
 - 하지만 제3국에서 열리는 각종 투자 설명회나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보이듯,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한국 물품의 國籍 表記 禁止 등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인적·물적 요소에서, 한국의 國籍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음
 -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이라 하더라도, 체제 안정과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II. 北美·北日 關係 展望

- (北美 關係) 11월 大選을 앞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한국의 政治 日程을 고려하여 對北 접근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있으나, 4월 이후에는 北美간에 보다 가시적인 관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미군 유해 송환 협상과 미사일 협상은 올해 北美 關係의 진전 여부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 문제의 타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이나 대표부급의 상호 교환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北日 關係)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한 미묘한 韓日 關係를 고려하여, 對北 접근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北美 關係의 진전 정도에 따라 보다 독자적으로 對北 接近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도 있음
 - 韓日간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북한 카드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1. 미국의 大選과 北美 關係

미군 유해 송환과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의 상호 교환 가능성

- 11월 大選을 앞두고 再選을 노리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이 지역에서의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며,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평화 협정 체결 등 對美 關係 진전을 위해, 최근 미국에 몇가지 宥和 措置를 취한 바 있음
 - 우성호 선원 송환,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 의사 통보, 미군 유해 송환 협상, 테러 포기 선언, 미사일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 표명 등이 그것임
 - 미국은 對北 경제 제재 추가 완화 조치와 對北 식량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 확대, 對北 지원이 필요하

나는 입장임

- 특히 미군 유해 송환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올해 北美 關係의 진전 여부와 그 수준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美軍 遺骸 送還 問題는 적성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 미국이 내세우는 최우선적인 전제조건이며, 미국과 베트남간의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은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음
- 클린턴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문제의 타결과 관련하여, 북한은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의 체결이나 대표부급의 상호 교환 설치 등 상당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4월 이후에는, 북미간에 보다 가시적인 관계 진전이 있을 듯

○ 올해 北美간에 일정 수준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4월 이후부터 미국의 11월 大選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없이 北美·北日 關係의 진전이 가시화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왔음
-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은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對北 접근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있으나, 4월 이후에는 北美간에 보다 가시적인 관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의 對北 식량 제공이나 對北 경제 제재 추가 완화 조치, 北美간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특히 미군 유해 송환 협상과 미사일 협성 타결 등이 그것이며,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이나 대표부급의 상호 교환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미국은 北美 關係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 등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과 인

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對北 關係 進
전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2. 韓日 關係와 北日 關係

미묘한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은
대북 접근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對北 접근
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4월 이후
에는 보다 독자적인 對北 접근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도 있음

- 韓日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 일본 정부는 현재와 같은 신중한 對北 접근
자세를 당분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일본으로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미묘한 韓日 關係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임
- 하지만 4월 이후 北美 關係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
어지고 남북 關係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등 일본 역시 對
北 關係 進전을 독자적으로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北日 양국의 자세나 보상 문제와 같은
현안 문제로 인해, 北日 關係의 진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所費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북 關係 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
카드를 일본이 EEZ 등 韓日간의 현안 문제를 자
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타결해 내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對北 關係 개선이라는
북한 카드를,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關係 개선이
라는 한국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나고자 할 것
으로 판단됨

III. 政府의 對北 政策

- (對北 政策) 현재와 같은 우리 정부의 對北 政策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볼 때 4월 이후에는 쌀 지원 재개 등 보다 宥和的인 政策으로 轉換될 가능성이 있음
- (食糧 支援 問題)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점차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일본→한국 순으로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현재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적극, 일본=신중, 한국=소극」 등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1. 對北 政策의 變化 可能性

4월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듯

- 현재와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4월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당국간 대화 재개·북한의 대남 비방 중지 등과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식량 지원이나 남북 경협 의 본격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무원칙한 대북 식량 지원이나 경제 협력이 總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 이후 北美·北日 관계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볼 때, 점차 정부의 대북 정책은 쌀 지원 재개 등 보다 宥和的인 政策으로 전

환될 가능성이 있음

- 연초 대통령의 國政 演說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요구 등 強性 基調와 화해 협력·통일 기반 조성 등 軟性 基調가 병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됨

2. 對北 食糧 支援 問題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쉽지 않은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 현재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적극, 일본=신중, 한국=소극」 등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우리 정부의 경우,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 대화 재개 등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전제로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軍糧米 轉用 防止와 같은 전달 과정의 透明性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中國의 無償 식량 지원(2~30만톤) 방침은 미국의 대북 지원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 금액은 현재 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규모 지원을 위해 3국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향후 미국과 일본은 대북 식량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됨

○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점차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됨

- 한·미·일 3국은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있던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4월 이후로 미루어 두었음
 - 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자체는 수용하되, 그 지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향후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 지원 방식에 있어 한국의 讓步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 22만 5천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한 바 있는 미국은 최근 긴급재난구호기금(FDA)으로 2백만 달러를, 국제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追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財源 부족으로 인해 미국의 독자적인 대규모 대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 역시 대북 식량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 이어, 그러나 한국에 앞서 일본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로서는 지원 방식 등에 있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다가 한발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쌀은 쌀대로 주고, 북한의 한국 배제 전략과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될 우려가 있음

IV. '96 南北 關係 展望

- (向後 展望) 4월 이후에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北美 關係의 일정한 진전과 연계되어, 남북한 양측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 남북 관계는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北美 關係의 진전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北美 關係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 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對應 方向)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체제의 정착을 위해, 대화와 접촉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체제 변화 유도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됨

4월까지 이어질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

○ 불발에 그쳤지만 최근에 발생한 김정일의 前妻 성혜림 일가 脫出 사건은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남북한은 각자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직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을 위해 남북한의 긴장과 대결을 이용하려 하고 있음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

○ 4월 이후 남북 관계는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북미 관계의 진전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당히 큰 바,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지만, 이 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③의 경우일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①은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②는 미국이 한국의 입

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③보다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됨

미국이 한국의 입장(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진전의 상호 연계)을	북미 관계 진전 여부	남북 관계 진전 여부	실현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① 수용할 경우 (북한의 대남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	×	×	小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
② 배제할 경우 (한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을 때)	○	×	中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③ 고려할 경우 (미국이 남북한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중용할 때)	○	○	大	남북한 양측의 상호 양보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조만간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북미 관계의 일정한 진전과 연계되어, 남북한 양측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먼저 미국은 미군 유해 송환 협상·미사일 협상 타결 등을 통한 대북 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위해 필요하면, 그 여건 조성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측에 상호 양보와 타협을 중용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역시 對美 關係의 일정한 진전을 위해 필요하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 준당국자 회담과 같은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남북 대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미 관계에 일정한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남북 대화에 여전히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 역시 북한과 美·日간에 발빠른 상호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 정세 변화에 조용하여,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당국간 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등 식량 지원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볼 때,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하나의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설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FIFA의 규정에 공동 개최가 가능하다면, 남북한 體育 會談을 통해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임
- 체육 회담은 문제가 많았던 北京 會談의 틀을 벗어나, 상호 부담도 줄이고 체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음
- 이렇듯 올해 주변 정세 변화의 큰 흐름은 북미 관계의 일정한 진전과 연계되어 남북한 양측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北美 關係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 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대화와 접촉을 통한 점진적인 체제 변화 유도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對北 包容 政策(engagement policy)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화와 접촉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체제 변화 유도 전략이 필요함
-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 통합과 북한 경제의 사유화 및 노동 시장 형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임

(이 태 섭)